



기록으로
골프를 세상에

(주)파이네트웍스

야구와 축구 등 대부분의 스포츠는 많은 통계와 기록을 수집·분석해 선수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산업 현대화에 기여한다. 그 반면에 골프는 수요와 산업 성장크기에 비해 기록과 통계를 관련 산업 전반에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 (주)파이네트웍스(대표 김영훈, www.phigolf.com)은 골프에 기록요소를 가미해 온 세상 골퍼들이 좀 더 즐겁게 골프를 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골프시장에 새로운 획을 그을 이들의 출시 제품들에 대해보자.

글_김은마 | 사진_신상은

통계는 발전의 토대다

한 회사에서 제품을 출시한 뒤 광고를 통해 인지도와 판매율을 높이는 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시장조사, 그것도 소비자 타깃과 시장상황에 대한 통계분석이다. 이처럼 어느 한 산업에서 시장에 대한 통계분석은 좀 더 발전을 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과정이다. 이는 스포츠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피겨스타 김연아 선수는 지난 2월 치러진 '4대륙 피겨 선수권' 경기 출전 이후 점프성공률을 분석해 연기 프로그램에서 성공률이 낮은 '트리플 루프'를 빼고 대신 성공률이 높은 '더블 악셀'을 넣겠다고 밝혀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처럼 스포츠선수의 기록 통계조사 및 분석은 선수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실정을 토대로 (주)파이네트웍스는 기록부분에 취약한 골프시장에서 골프정보 네트워크를 구축, 골퍼들의 성적관리와 골프장 및 골프관련 업계에 정확하고 생생한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골프능력 확대와 관련산업 활성화의 기초를 만들고 있다.

스코어 데이터로 골프를 즐긴다 ?!

1999년 유통 물류 정보 네트워크 구축 및 솔루션 기술을 바탕으로 수년간의 준비 끝에 지난해 8월 본격적으로 사업전선에 뛰어든 파이네트웍스. '골프의 통합적 스코어관리 서비스'에 대해 특허를 획득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파이골프(www.phigolf.com)를 구축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파이골프는 골퍼 스스로 스코어 데이터를 관리하고 통계를 활용함으로써 능력을 향상시키고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하여 골프 생활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다. 김영훈 대표는 "골프의 스코어 분석뿐만 아니라 골퍼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동호회 관리 서비스로 프로골퍼는 물론, 아마추어 골퍼도 골프를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구글의 위성 맵을 활용, 세계 골프장 정보를 공유하고 라

운딩 스코어 기록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파격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이골프는 골프의 대중화 물결을 타고 골프장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골프는 고급 스포츠라는 인식 때문에 일반인이 이용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 그러나 요즘은 골프가 대중화 되는 시점에 있어서, 수요자가 골프장을 찾는 시스템에서 골프장이 직접 골퍼를 찾아 나서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파이골프 시스템은 골프장에서 고객 기록 관리는 물론, 마케팅 툴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벤처인큐베이터에서 성장 발판 마련

현재 파이네트웍스는 중소기업청 신기술보육(TBI) 사업자로 선정된 후 서울벤처인큐베이터에서 기술창업패키지를 수료, 지난해 12월에 입주해 사업에 대한 성공확신과 열정, 패기로 뜰뜰 끓쳐 점차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대표는 "많은 벤처기업이 열정과 기술력은 대기업에 못지않으나, 대부분 사업 아이템에 대한 경영 능력이 모자란다"며 "벤처인큐베이터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자문과 모니터링을 통한 멘토 역할을 해 벤처의 사업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청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 등에 대해 발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실제로 파이네트웍스는 인큐베이터에 입주한 뒤, 파이골프의 골퍼 기록 관리 분석솔루션 보급 이외에도 'J골프'나 'SBS골프' 등 미디어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하게 활용되어 그 가능성을 입증 받고 있다.

금융과 유통 등의 선진 IT시스템 기술을 기반으로 스포츠로서의 골프를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파이네트웍스. 이뿐만 아니라 골프장, 골프연습장 등의 영업 관리나 제품개발 등 전반적인 골프산업의 도약에 기여할 이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